

돈 잘쓰는 지혜 '집중 연구'

'중단 발전을 위한 재정 개선 방안 연구위원회' 발족 위원장에 초격 스님...분담금 개선·수익 다변화 중점

"이런 재정 상태라면 조계종 3년 안에 파산한다." "이런 구조로 중단이 운영되는 게 신기하다." 조계종 재정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은 지난 10년간 예산이 거의 동결되다시피 했다. 규모는 커지고 쓸 곳도 많아지고 있지만 분담금 외 특별한 세수확보방안이 없다. 공찰보다 사찰사업이 더 많은 현실에서 분담금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담금 또한 형평성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총무원이 중단 재정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 수익 다변화를 꾀해야 하지만 속수무책이다. 일반 사찰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돼 일부 사찰은 고사위기에 빠

졌다. 특히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라 중단 및 사찰 수익구조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단은 수입증대를, 사찰은 재정 개선을 이루는 윈윈(Win-Win)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 내에 '중단 발전을 위한 재정 개선 방안 연구위원회'가 발족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난제를 풀기 위해 승가에서는 초격(파주 보광사 주지)·금강(해남 미항사 주지)·심산(부산 흥법사 주지)·주경(중앙종회 사무처장) 스님이, 학계에서는 김응철·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구병진 박사(서울대 경영학)가, 일반직종무원 출신으로 황찬익 서울 병은사 종무실장과 박재현 평장 월정사 종무실장이 참여했다.

연구위는 5월 31일, 6월 13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밑그림을 그렸다. 첫 번째 회의결과 연구의 중점과제는 분담금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수익 다변화 문제도 연구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 예산종회 이전까지 분담금 문제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기로 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위 위원장에 초격 스님을, 간사에 유승무 교수를 선출했다. 연구를 2개년 계획으로 잡고 1년차에는 '분담금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2년차에는 '중단 및 사찰 수익 다변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분담금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을 위해 유승무 교수를 조사책임자로 하고 김응철 교수, 구병진 박사, 황찬익·박재현 종무실장이 참여하기로 했다.

연구위는 필요에 따라 출·재가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구본사주지스님 및 중앙종회 의원과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서울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이 초하루 법회에 동참한 신도들에게 수행과 나눔에 대한 리플릿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전국 사찰 수행과 나눔 주제로 공동법회 풍경소리와 연계 나눔운동 지하철 홍보 계획

6월 15일 오전 11시 조계종 전국 사찰에서 수행과 나눔을 주제로 한 초하루 공동법회가 봉행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올해 사업 기본방향인 '수행으로 입재하고, 나눔으로 회향하자'로 잡고, 특화사업으로 '1인 수행, 1단체 1나눔'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모색하고 있다"며 "수행과 나눔에 대한 인식의 내·외 연을 확산하고 교계 내외에 캠페인 운동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공동법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국 각 교구본사는 본사 법당에

서 동시에 진행했으며 직할교구의 경우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도선사에서 리플릿과 홍보염서 등을 초하루법회에 참여한 신도들에게 나눠줬다. 이를 통해 보시수행에 기반한 나눔운동의 인식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풍경소리)'과 연계해 전국 각 지하철 내 게시판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구파발역과 이수역에 특별전시장을 마련해 6월과 7월 홍보활동을 펼친다.

남동우 기자

관음사 해결에 동참 결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이 제주 관음사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6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3차 교구본사주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시몽 스님의 직무대행기 내에 관음사 주지 후보자가 선출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총무원 집행부에서는 자급의 관음사 상황에 대해 냉철하고 합리적인 종무 집행과 엄정한 종법 적용으로 조속히 관음사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일봉선교종 종정 추대

대한 불교 일봉선교종 제4대 종정 고성 대종사(사진) 추대법회가 6월 22일 오후 1시 서울 세검정 하림각 신관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봉행된다.

고성 대종사는 1955년 부산 범어사 설봉 스님을 계사로 일봉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61년 부산 범어사에서 등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김원우 기자



평창 유치기원 대법회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20여일을 앞두고 평창 유치기원 대법회가 6월 1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법회는 출향 강연도민 불교신도회(회장 최경희)가 주최한 것으로 강원도 불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서산 김포 지회 창립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서산과 김포에 잇따라 지회를 창립하는 등 명실공히 전국 조직망 구축에 팔을 걷어부쳤다. 불교환경연대는 6월 30일 오후 1시 서산 부석사 대웅전에서 첫 지회인 '서산불교환경연대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또 7월 7일 오후 3시 김포 효원문화연수원에서는 '김포 불교환경연대 창립식'을 갖는다.

김주일 기자



"개혁만이 일류대학 합류 지름길"

interview

영배 스님 동국대 이사장



"기존의 보수적이고 낡은 관습을 떨쳐버리고 변화와 개혁을 실천하는 것만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동국대가 명문 사학, 더 나아가서는 세계일류대학으로 합류하는 지름길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사진) 6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영배 스님은 "현재 새 총장이 취임해 108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학사운영과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급선무인데 법안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동국대 예산 가운데 법안 전입

금은 현재 거의 없다. 예산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최근 법안에서 갖고 있는 부동산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땅값 토지도 많이 찾아냈다. 부동산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으면 재산 활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자산은 1600여만 평 정도가 된다.

▲국회의료원 산하 병원도 재정확충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할 계획이신데.
-각 병원들이 사용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구 구매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어 놓았다. 전문 도매상인 이지메디칼과 협약해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들을 공개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연간 2억원 이상의 정보이용료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등 재원마련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각 병원에 행정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도입해 특히 일산불교병원

은 올해 말 정도면 손익분기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교 총장의 108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교직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다.
-하네 구성원, 특히 교직원들은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과거의 관습을 뜯어 고치고 학생과 학부모를 고객으로 인정하며 인재양성에 매진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동국대의 발전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교육한경 여건 개선에 대한 계획은.
-현재 동국대 남산 캠퍼스의 부지는 4만 5000여평으로 강의실과 연구공간이 부족하다. 고도제한에 묶여 증축이 쉽지 않다. 국가방으로 돼 있는 운동장과 수영장 등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매입하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지만 수월치 않다.

우선 확립관과 동국관 등을 이노베이션해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한 신공학관과 기숙사 등도 건립할 계획이다. 교원확충도 할 생각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는 우수한 교수진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국대에 1억 기부 부산 영일암 현응 스님

부산 영일암 주지 현응 스님이 6월 11일 학교발전과 인재육성에 써달라며 1억원을 동국대에 기부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현응 스님은 이번 기부 외에도 가장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10명에게 매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며 "2002년에는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건립에 써달라며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그동안 동국대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사전심의제도' 도입될 듯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에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 사무처장 주경 스님은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42차 법규위 회의 후 "법규위 간사스님, 중앙종회 사무처 등이 참여해 회의에 안전이 보장되기 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사전심의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조선불교대선종(大禪宗) 창종 선포문!



창종 선포문

삼계의 대도사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무명과 삼독 심에 빠져 육도의 윤회 속에서 참성품을 깨닫지 못하고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일체 중생을 한량없는 대자대비로 구제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에 불법을 퍼신지 어연 2천6백년이라!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되면서 전법의 양상이 여러모로 전개되어 왔다. 일찍이 부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셨고 인류평화의 의의를 알려 주셨습니다. 이에 조선불교대선종(大禪宗)은 석가모니부처님을 교조를 하고 선,교,률을 수지 신앙한다. 이에 중단운영에 필요한 중헌,종법을 마련하여 불법이 중생교화에 지침이 되고 본 종단이 수행과 전법의 터전이 되도록 하였으며 한국불교의 일대전환을 위해 「호국불교」 「생활불교」 「현대불교」의 삼위 일체를 갖추어 한국불교 포교는 물론 세계불교발전에 기여하고자 이에 「조선불교대선종」을 창종하고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불기2551년(2007년) 6월 13일
조선불교 대선종 (大禪宗)
창종주 겸 종정 석범 정 함장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168-1번지 전화 : (041)622-3056 전송(041)522-9990



조선불교대선종 총본산 천정사